

# 《靈樞動輸》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張大源·李南九·蔡禹錫

|                       |     |
|-----------------------|-----|
| I. 緒論 .....           | 294 |
| II. 研究 方 法 .....      | 296 |
| III. 本論 .....         | 297 |
| 第一章. 手太陰脈의 獨動不休 ..... | 297 |
| 第二章. 足陽明脈의 獨動不休 ..... | 302 |
| 第三章. 足少陰脈의 獨動不休 ..... | 307 |
| 第四章. 營衛의 運行 .....     | 310 |
| IV. 結 論 .....         | 312 |
| 參考文獻 .....            | 315 |

## 《靈樞·動輸》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張大源 李南九 蔡禹錫

### ABSTRACT

《靈樞 動輸》 explains the way that the Arm Greater um Lung meridian, the Leg lesser um kidney meridian and the Leg Yang-Myong Stomach meridian are keeping incessant pulsation, and the relation that these three meridians transport and irrigate around the whole body. And also, when the meridian lines have been obstructed, the ki travels via shortcuts, in the course of spreading outer ki and inner ki around the whole body. Concretely speaking, in the first chapter it is explained the way that the Arm Greater um Lung meridian pulses incessantly, in the second chapter, it is explained the way that the Leg Yang-Myong stomach meridian pulses incessantly, in the third chapter, the Leg Lesser um kidney meridian pulses incessantly and in the fourth chapter, the movement of inner and outer ki are explained. But this chapter has many ancient letters and many parts omitted, so it is too hard to understand directly. Therefore we set to work with the view of helping to understand the original text more accurately by the reference of several editions and many commentarists' fruitful researches.

### 1. 緒論

《黃帝內經》은 《素問》과 《靈樞》의 두 책을 包括한 醫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韓醫學 文獻中에서는 가장 最初의 그리고 가장 完備된 古典이다. 이 가운데 《靈樞·動輸》는 《靈樞》第九卷에 編述되어 있고, 《黃帝內經太素》에는 卷九 脈行同異에 기술되어 있으며, 《黃帝鍼灸甲乙經》에는 卷二에 包含되어 있고, 《類經》에는 疾病類 八卷에 敍述되어 있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과 《黃帝內經靈樞經語譯》에서는 內容에 따라 모두 五章으로, 《靈樞經校釋》에서는 四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는 《靈樞經校釋》에 따라 四章으로 나누어 研究하였다.本篇의 이름을 動輸라 한 것은 本篇안에 手太陰, 足少陰, 足陽明의 俞穴이 다른 經脈의 俞穴과는 달리 끊임없이 搏動하는 이유를 論하고 있으므로 動輸라 한 것이다.

本篇은 十二經脈 가운데 手太陰, 足少陰, 足陽明의 俞穴이 다른 經脈의 俞穴과는 달리 끊임없이 搏動하는 道理와 이들이 全身氣血로 轉輸, 注入되

| 番 號 | 書 目              | 略 稱 |
|-----|------------------|-----|
| 1   |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 胡本  |
| 2   |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 熊本  |
| 3   | 明繡谷書林周日校重刊本      | 周本  |
| 4   | 明萬歷二十九年醫統正脈衆書本   | 統本  |
| 5   | 明金陵尙義齋刊本         | 金陵本 |
| 6   |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 黃校本 |
| 7   |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 藏本  |
| 8   | 日本舊抄本            | 日抄本 |
| 9   |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 日刻本 |
| 10  | 楊上善《黃帝內經太素》      | 太素  |
| 11  |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     | 甲乙  |
| 12  | 張介賓《類經》          | 類經  |
| 13  | 馬蒔《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 馬注本 |
| 14  | 張志聰《靈樞集註》        | 張注本 |

表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는 관계에 대하여 論述하고 있고 아울러 營衛가 全身으로 輸布되는 過程中 絡脈이 斷絶되면 지름길로 流通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이야기하면 第一章에서는 手太陰脈의 獨動不休, 第二章에서는 足陽明脈의 獨動不休, 第三章에서는 足少陰脈의 獨動不休의 道理에 대하여 論述하고 있고, 第四章에서는 營衛의 運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本篇은 文章이 古文으로 되어 있는 데다 많은 部分이 省略되어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註釋家들의 研究成果를 參照하지 않고는 본래의 趣旨를 解得하기 어려우므로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들의 見解를 연구하여 校勘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가하므로써 原文의 보다 精確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본 研究에 착수하였

| 番 號 | 註釋家   | 時代    | 書 名             | 略稱 |
|-----|-------|-------|-----------------|----|
| 1   | 楊上善   | 隋     | 黃帝內經太素          | 太素 |
| 2   | 張介賓   | 明     | 類經              | 景岳 |
| 3   | 馬蒔    | 明     |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 馬  |
| 4   | 張志聰   | 清     | 靈樞集註            | 張  |
| 5   | 黃元御   | 清     | 黃元御醫書十一種 (靈樞懸解) | 黃  |
| 6   | 丹波元簡  | 1803年 | 靈樞識             | 丹波 |
| 7   | 楊維傑   | 1976年 | 黃帝內經靈樞譯解        | 譯解 |
| 8   | 小曾戶洋  | 1981年 | 黃帝內經古注選集·靈樞講義   | 講義 |
| 9   | 郭竊春   | 1981年 |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 語譯 |
| 10  | 河北醫學院 | 1982年 | 靈樞經校釋           | 校釋 |

表2. 較註에 引用한 文獻

다.

## II. 研究 方法

原文의 研究를 돕기 위하여 本文을 四章으로 나누어 懸吐를 하고, 字句解, 校勘, 較註, 直譯과 意譯을 하였으며, 內容을 考察하였다.

가. 原文은《聚珍倣宋版》을 底本으로 하였고, 任應秋의《黃帝內經章句索引》을 中心으로, 張介賓의《類經》과 河北醫學院의《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內容에 따라 四章으로 나누었다.

나.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가끔씩 現代의인 用語를 사용하였다.

다.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語와 訓을 取捨選擇하였다.

라. 校勘은「表1」에 있는 文獻을 基本으로 하였다.

마. 較註는「表2」에 나타나 있는 十種의 註解書들 가운데 類似한 註釋을 內容別로 모았으며, 모은 註 가운데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여 原文解釋에 引用하였고,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을 解釋하는데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含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아.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字句解에 ( ), 校勘에 [ ], 引用文獻에《 》, 直譯과 意譯에 【 】로,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 III. 本論

#### 第一章. 手太陰脈의 獨動不休

##### 【原文】

黃帝曰 經脈十二而手太陰足少陰陽明<sup>1)</sup>이 獨動不休는 何也오 岐伯이 曰 是明胃脈也<sup>2)</sup>일새니 胃爲五藏六府之海<sup>3)</sup>라 其清氣上注於肺하면 肺氣從太陰而行之하되 其行也 以息往來 故로 人一呼에 脈再動하고 一吸에 脈亦再動하여 呼吸不已라 故로 動而不止니이다 黃帝曰 氣之過於寸口也에 上十은 焉<sup>4)</sup>息하고 下八은 焉伏<sup>4)</sup>하며 何道從還하니잇고 不知其極<sup>2)</sup>하노이다 岐伯이 曰 氣之離藏也<sup>5)</sup>에 卒然이 如弓弩之發하고 如水下岸<sup>6)</sup>이나 上於魚以反衰하니 其餘氣衰散以逆上<sup>7)</sup> 故로 其行이 微하니이다

##### 【字句解】

(1) 焉: 何也 어찌 언.

(2) 極: 끝 극.

##### 【校勘】

1) 手太陰足少陰陽明: 《甲乙》卷二第一에는 '手太陰之脈'으로 되어 있다.

2) 是明胃脈也: 《太素》卷九脈行同異와 《甲乙》卷二第一에는 '足陽明胃脈也'로 되어 있다.

3) 胃爲五藏六府之海: 《太素》卷九脈行同異와 《甲乙》卷二第一에는 '胃者五藏六府之海'로 되어 있다.

4) 上十焉息 下八焉伏: 《太素》卷九脈行同異에는 '上焉息 下焉伏'으로, 《甲乙》卷二第一에는 '上出焉息 下出焉伏'으로 되어 있다.

5) 氣之離藏也: 《太素》卷九脈行同異와 《甲乙》卷二第一에는 '氣之離于藏也'로 되어 있다.

6) 卒然如弓弩之發 如水下岸: 《太素》卷九脈行同異에는 '卒如弓弩之發 如水下崖'로 되어 있다.

7) 其餘氣衰散以逆上: 《太素》卷九脈行同異에는 '其餘衰散以逆上'으로 되어 있다.

##### 【較註】

[1] 黃帝曰 經脈十二而手太陰足少陰陽明 獨動不休何也 岐伯曰 是明胃脈也 胃爲五藏六府之海 其清氣上注於肺 肺氣從太陰而行之 其行也 以息往來 故人一呼 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不已 故動而不止

태<sub>xx0</sub>《太素》는 “穀食이 胃로 들어가면 糟粕, 津液, 宗氣로 변하여 三隧로 나뉘어 진다. 飲食은 津液으로 泌別되어 脈으로 注入되고 이것이 변화되어 魄이 되므로서 四末을 運營하고, 안으로는 五臟六腑로 주입되어 일정한 시간에 상응하니 이름이 營氣이고, 거기에서 나온 사나운 기운은 慄疾하여 먼저 四末과 分肉皮膚의 사이로 運行하여 晝夜로 쉬지 않으니 이름이 衛氣이고, 營은 中焦에서 나오고 衛는 上焦에서 나오되 大氣가 묻쳐 운행하지 않는 것은 이름이 宗氣인데 胸中에 쌓여 있는 것을 氣海라 한다. 이 宗氣는 肺에서 나와 喉嚨을 循行하는데 숨을 내쉴 때는 나가고 들이 쉴 때는 들어간다. 그러므로 胃가 五藏六府의 海가 되는 것이다. 胃에서 나온 清氣는 위로 肺로 주입되어 手太陰一經脈을 따라 上下로 運行하게 된다. 그 手太陰脈이 上下로 運行하는 것은 胸中の 氣海之氣가 肺로 나와 喉嚨을 循行하되 숨을 쉬면 나가고 들이마시면 들어가 숨과 함께 往來하기 때문에 上下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脈은 手太陰脈이니 사람이 穀氣를 받아들이면 胸中에 쌓여 있다가 숨을 내쉬면 手太陰脈으로 밀려가 두 번 뛰고 숨을 들이쉬면 手太陰脈으로 끌어 들어 다시 두 번 뛰니 이름하여 氣海라는 것이고 呼吸에 따라 쉽이 없기 때문에 手太陰脈이 끊임없이 뛰는 것이다.”<sup>1)</sup>고 하였고, 景岳馬校釋은 “手足의 脈은 모두

十二經이나 오직 手太陰과 足少陰 그리고 足陽明의 三經이 惟獨 動脈이 많은데 三經의 脈은 바로 手太陰의 太淵과 足少陰의 太谿와 足陽明은 위로는 人迎, 아래로는 衝陽이 다 搏動이 더욱 강한 곳이다. 是明胃脈이라는 것은 三經의 搏動이 다 胃氣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말한다. 胃는 五藏六府의 海이니 그 盛한 氣運이 미치기 때문에 搏動이 유독 강한 것이다. 이 手太陰脈이 뛰는 것은 胃가 水穀을 받아 清氣가 위로 肺에 주입되면 肺氣는 手太陰經을 따라 운행하되 그 운행이 숨을 따라 往來하기 때문이니, 숨을 쉬면 脈도 뛰게 된다. 그러므로 呼吸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寸口의 脈도 역시 박동을 그치지 않는 것이다.”<sup>2)</sup>고 하였으며, 張은

니 積於胸中을 命曰氣海라 出於肺하여 循喉嚨하되 呼則出하고 吸則入也라 故曰 胃爲五藏六府之海也라 胃之清氣는 上注於肺하여 從手太陰一經之脈으로 上下而行이라 其 手太陰脈上下行也는 要由胸中氣海之氣가 出肺循喉嚨하되 呼出吸入하여 以息往來 故曰 手太陰脈이 得上下行이라 脈은 手太陰脈也나 人受穀氣하면 積於胸中이라가 呼則推於手太陰하여 以爲二動하고 吸則引於手太陰하여 復爲二動하니 命爲氣海요 呼吸不已 故曰 手太陰이 動不止也라

2) 景岳: 手足之脈은 共十二經이나 然이나 惟手太陰足少陰足陽明三經이 獨多動脈이로되 而三經之脈은 則手太陰之太淵과 足少陰之太谿와 足陽明上則人迎과 下則衝陽이 皆動之尤甚者也라 是明胃脈者는 言三經之動이 皆因於胃氣也라 胃爲五藏六府之海니 其盛氣所及 故曰 動則獨甚이라 此手太陰之脈動者는 以胃受水穀而清氣上注於肺하면 肺氣從手太陰經而行之하되 其行也 以息往來하니 息行則脈動 故曰 呼吸不已에 而寸口之脈도 亦動而不止也라 ○馬: 手足經脈은 共有十二로되 惟手太陰肺經과 足少陰腎經과 足陽明胃經이 其脈獨動不休하니 卽如肺之太淵과 腎之太谿와 胃之衝陽은 誠動之不休也나 他經之脈은 行之甚微하여 似有所休 故曰 間耳라 伯이 乃以肺經言之하니 蓋肺脈이 雖行於肺나 而實始之於胃하니 是必明之於胃脈而後에 可以知肺脈也라 胃爲五藏六府之海니 受水穀之氣하여 以生精微之氣하되 其積於上焦者를 名曰宗氣요 其由中焦하여 以降於下焦而生者를 名曰營氣니 所謂清者爲營이 是也라 故曰 此篇에 遂名之曰清氣라 出下焦하여 以升於中上二焦而生者를 名曰衛氣니 所謂濁者爲衛是也라 故曰 下節에 名曰悍氣라 是清氣는 隨宗氣以行于經脈之中하되 始從

1) 太素: 穀入於胃하면 變爲糟粕津液宗氣하여 分爲三隧라 泌津液하여 注之於脈하여 化而爲血하여 以營四末하고 內注五臟六腑하여 以應刻數하니 名爲營氣요 其出悍氣慄疾하여 先行四末分肉皮膚之間하여 晝夜不休者는 名爲衛氣요 營出中焦하고 衛出上焦也로되 大氣搏而不行은 名爲宗氣

“此章은 營衛와 宗氣가 度數대로 經脈의 内外를 運行하고 衝脈이 足少陰과 陽明經으로 운행하여 腹氣와 脛氣의 길로 나오는 것을 論한 것이니, 血氣가 經脈皮膚의 사이로 운행하여 서로 서로 和平하게 轉輸되고 相應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黃帝가 질문한 手太陰, 足少陰, 陽明의 搏動이 쉬지 않고 뛰는 곳은 手太陰의 太淵經渠와 足陽明의 人迎衝陽과 足少陰의 太谿의 動脈을 말한다. 岐伯이 말한 ‘是明胃脈’이라는 것은 胃는 五臟六腑의 海이니 그 營衛와 宗氣가 다 胃腑水穀의 精에서 所生하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清氣上注於肺’라는 것은 營氣와 宗氣이고 ‘肺氣從太陰而行之’라는 것은 脈氣가 三陰三陽의 氣를 따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其行也 以息往來’라는 것은 사람이 一呼一吸할 때에 脈이 六寸 운행하고 하루 낮 하루밤 동안 一萬三千五百번 호흡하는 중에 脈이 八百十丈 運行하여 一週함을 말한다.”<sup>3)</sup>고 하였다.

[2] 氣之過於寸口也 上十焉息 下八焉伏 何道

中焦하여 注於肺하고 從太陰經而行之하니 由是而行於手陽明大腸經足陽明胃經足太陰脾經手少陰心經手太陽小腸經足太陽膀胱經足少陰腎經手少陽三焦經手厥陰心包經足少陽膽經足厥陰肝經하고 又自肝經으로 以行於肺經이라 其行也 以息往來는 蓋一呼一吸이 總爲一息이니 惟其一呼에 脈乃再動하고 一吸에 脈亦再動하여 一呼一吸에 脈乃四動하여 閏以太息에 脈乃五動하여 呼吸不已 故로 動而不止라 良由寸口者는 卽手太陰經之太淵穴이니 十二經脈이 必會於此하니 此脈之所以動而不休也라 ○校釋: 以息往來는 是指呼吸與脈氣의 往來運行에 有密切의 關係라

- 3) 張: 此章은 論營衛宗氣가 循度行於經脈之外內하고 衝脈이 行於足少陰陽明之經而出於腹氣脛氣之街니 以明血氣之行於經脈皮膚之間하여 交相和平俞應者也라 帝問手太陰足少陰陽明獨動不休者는 謂手太陰之太淵經渠와 足陽明之人迎衝陽과 足少陰太谿之動脈也라 伯言是明胃脈者는 謂胃爲五臟六腑之海니 其營衛宗氣가 皆胃腑水穀之精所生이라 清氣上注於肺者는 營氣宗氣也요 肺氣從太陰而行之者는 脈氣가 隨三陰三陽之氣而行也라 其行也 以息往來者는 人一呼一吸에 脈行六寸하고 日夜一萬三千五百息에 脈行八百十丈하여 爲一週也라

從還 不知其極

《太素》는 “氣는 手太陰脈氣가 寸口로부터 위로 肺로 들어가 增殖하고 肺로부터 아래로 手指에 이르러 굽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伏은 屈의 뜻이다. 肺氣가 手太陰脈道를 따라 아래로 手指端에 이르고 肺로 돌아 올 때에 本脈을 따라 돌아오는가? 아니면 다른 脈道가 있어 그 길로 돌아오는가? 내 그 끝을 알지 못하겠다.”<sup>4)</sup>고 하였고, 馬는 “脈이 寸口를 지날 때에 위로 숨을 따라 운행하는 것은 十分에 비길 수 있고 아래로 臟內에 잠복하는 것은 八分에 비길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어느 길로 오고 어느 길로 돌아가는 지를 알지 못하여 끝나는 곳이 없는 것 같으므로 黃帝께서 다시 질문하신 것이다.”<sup>5)</sup>고 하였으며, 景岳은 “寸口는 手太陰脈이다. 上下는 進退의 形勢를 말하는 것이고, 十과 八은 盛衰의 形態를 비유한 것이다. 焉은 何, 息은 生長의 뜻이다. 上十焉息은 脈이 나 아갈 때에 그 氣가 盛하는데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생기는 것인가하고 말한 것이고, 下八焉伏은 脈이 물러 날때에 그 氣가 衰하게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가서 잠복되는가하고 말한 것이다. 이 脈이 가고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그 끝을 窮究하기 어려운 것 같다.”<sup>6)</sup>고 하였고, 張은 “黃帝께서 질문한 ‘氣之過於寸口 上十焉息’은 바로 營氣와 衛氣 그리고 宗氣가 다 息道로 走行하여 寸口로 變化되어

- 4) 太素: 氣는 謂手太陰脈氣가 從手寸口로 上入肺而息하고 從肺로 下至手指而屈이라 伏은 屈也라 肺氣가 循手太陰脈道하여 下手至手指端하고 還肺之時에 爲從本脈而還가 爲別有脈道還也아 吾不知端極之也라
- 5) 馬: 脈之過於寸口也에 上之從息而行者는 可擬十分이요 下之伏於臟內者는 可擬八分이니 但不知其何道而來며 何道而還하여 罔有抵極하니 帝之所以復問也라
- 6) 景岳: 寸口는 手太陰脈也라 上下는 言進退之勢也요 十八은 喻盛衰之形也라 焉은 何也라 息은 生長也라 上十焉息은 言脈之進也에 其氣盛하니 何所來而生也요 下八焉伏은 言脈之退也에 其氣衰하니 何所去而伏也요 此其往還之道는 眞若有難窮其極者라

나타나는 것이고, '下八焉伏'은 내부의 營血로 流溢되어 아래의 胞中으로 潛伏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치 물이 강둑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살펴보면 本經營氣篇에 '營氣의 道는 穀氣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배가 되니, 穀氣가 胃로 들어가면 肺로 전달되어 인체 내부로 流溢되고 인체 외부로 布散되는데, 그 중 정밀하고 專一한 기운은 經隧로 운행되어 항상 영위작용을 그치지 아니 해서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고 하였다. 무릇 黃帝가 말씀한 '下伏之營血에 入이 있다는 것'은 精專한 氣運이기는 하지만 經隧로 운행되는 營은 다만 二分일 뿐이다. 무릇 營氣는 脈中으로 운행하고 衛氣는 脈外로 운행하며 宗氣는 營과 衛의 두 길로 운행되니, 이 經脈外內의 氣가 서로 和平하면 有形의 營血도 外內로 나뉘어 운행하여 서로 서로 勻等하게 되는 것이다. 무릇 衛脈은 胞中에서 起始하여 위로 背裏로 循行하여 經絡의 海가 되고, 그 가운데 表部로 떠서 밖으로 운행하는 것은 腹部 右側을 따라 上行하여 胸中에 이르러 흩어져 充膚熱肉하고 皮毛로 스며드니, 이 胞中으로 내려가 潛伏하는 營血은 반은 衝脈을 따라 脈內로 운행이 되고 반은 衝脈을 따라 皮膚로 흩어진다. 또 足陽明脈은 衝脈과 더불어 배꼽 左右의 動脈을 循行하여 腹氣의 街로 나오고 衝脈은 少陰大絡과 더불어 陰股를 따라 經氣의 街아래로 나온다. 무릇 精專이라는 것은 둘로 나뉘어 經隧로 운행되고 衝脈을 따라 운행하는 것도 둘로 나뉘어 氣街로 나오므로 經脈外內의 氣血이 서로 勻等하게 된다. 皮膚의 氣血은 指井을 따라 營俞로 溜注하고 脈中の 血氣는 本標를 따라 膚表 밖으로 나와 길을 따라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sup>7)</sup>

7) 張: 帝問氣之過於寸口上十焉息者是 乃營氣衛氣宗氣가 盡走於息道而變見於寸口也요 下八焉伏者是 謂流溢於中之

[3] 氣之離藏也 卒然如弓弩之發 如水下之岸 上於魚以反衰 其餘氣衰散以逆上 故其行微

《太素》에는 "氣는 手太陰의 脈氣이다. 手太陰의 脈氣가 胃의 中焦로부터 위로 肺로 들어가고 腋部로 내려가 손을 向하여 魚際로 올라가 少商에 이를 때에 藏府를 타고 남은 氣는 衰散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운행이 느리고 미약한 것이다."<sup>8)</sup>고 하였고, 馬는 "岐伯이 '脈氣가 各臟으로 나뉘어 지는 것이 마치 화살이 弓弩를 벗어 나는 것과 같고 물이 강변을 따라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화살은 발사되면 나아가고 물은 내려가면 흐르는 것이니, 氣가 寸口로 모여 魚際로 올라가면 肺經에 모이게 된다는 말이다. 또 肺經을 따라 운행되는 氣는 하루 낮 하루 밤에 모두 五十度이나 다만 魚際로 올라갈 때에는 十分쯤 커지고 魚際를 지난 다음에는 八分으로 伏藏된다. 그러므로 魚際로 다

營血하여 下伏於胞中이라 故로 如水之下岸也라 按本經營氣篇에 曰 營氣之道는 內穀爲實하니 穀入於胃하면 乃傳之肺하여 流溢於中하고 布散於外하니 精專者는 行於經隧하여 常營無已하여 終而復始라하니라 夫帝言下伏之營血有八은 是精專而行於經隧之營은 止二分矣라 夫營氣는 行於脈中하고 衛氣는 行於脈外하며 宗氣는 兩行營衛之道하니 此經脈外內之氣가 相爲和平하면 而有形之營血도 分行于外內하여 亦相爲勻等者也라 夫帝言下伏之營血有八은 是精專이로되 而行於經隧之營은 止二分矣라 夫營氣는 行於脈中하고 衛氣는 行於脈外하며 宗氣는 兩行營衛之道하니 此經脈外內之氣가 相爲和平하면 而有形之營血도 分行于外內하여 亦相爲勻等者也라 夫衝脈은 起於胞中하여 上循背裏하여 爲經絡之海요 其浮而外者는 循腹右上行하여 至胸中而散하여 充膚熱肉하고 滲滲皮毛하니 此下伏於胞中之血은 半隨衝脈而行於脈內하고 半隨衝脈而散於皮膚라 又足陽明之脈은 與衝脈으로 循膈左右之動脈하여 而出於腹氣之街하고 衝脈은 與少陰之大絡으로 循陰股而下出經氣之街라 夫精專者는 二分하여 行於經隧하고 隨衝脈者도 二分하여 出於氣街하니 是經脈外內之氣血이 相爲勻等矣라 皮膚之氣血은 從指井而溜注於營俞하고 脈中之血氣는 從本標而外出於膚表하여 從道往還하니 莫知其極矣라

8) 太素: 氣는 手太陰脈氣也라 手太陰脈氣가 從胃中焦로 上入於肺하고 下腋하여 向手上魚하여 至少商之時에 以乘藏府하여 餘氣衰散이라 故로 其行이 遲微也라

올라가면 氣가 흡사 衰해 진 듯하고 그 나머지 氣가 다 衰散된 듯 하다가 또 거슬러 魚際로 올라간다. 이러한 까닭으로 各經이 魚際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운행이 흔히 미약하지만 오직 肺는 百脈의 모이는 곳이 되어 다른 經과 달리 끊임없이 뛰게 되어 같지 않다.”<sup>9)</sup>고 하였으며, 景岳《校釋》은 “脈氣가 안으로 藏에서 發現되고 밖으로 經에 도달함에 卒然함이 마치 弓弩가 발사된 듯하고 물이 강변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은 그 굳건하고 날카로운 氣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强弩의 끝은 그 힘이 기필 부드럽고 急流의 끝은 그 形勢가 반드시 緩慢하다. 그러므로 脈이 寸口에서 유래하여 魚際로 올라갈 때에는 盛했다가 반대로 衰해 지고 그 나머지 氣는 衰散된 形勢로 逆上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운행이 微弱하니, 이것이 脈氣의 盛衰가 同等하지 않는 까닭이다.”<sup>10)</sup>고 하였고, 張은 “岐伯이 말한 ‘氣之離臟 卒然如弓弩之發’이라는 것은 五臟의 氣가 手太陰에 이르러 寸口에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손에 반응하여 뛰는 맥상이 마치 弓弩에서 弦이 발사된 듯하다가 魚際로 올라 가게 되면 搏動하는 기운이 衰해져 動脈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其餘氣衰散

以逆上’이라는 것은 나머지 氣는 分散되어 위의 手陽明大腸經으로 注入되기 때문에 그 脈이 魚際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運行이 미약하고 느려지는 것이다. 이는 五臟의 氣가 胃氣로 因하여 手太陰에 이르되, 腹部에서는 손으로 走行하고 손에서는 머리로 走行하며 머리에서는 다리로, 다리에서는 腹部로 走行하여 항상 運營되어 끝나면 다시 시작하여 環轉이 끝이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다.”<sup>11)</sup>고 하였다.

#### 【考察】

1. ‘手太陰足少陰陽明’이 《甲乙》卷二第一에는 ‘手太陰之脈’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岐伯의 對答이 手太陰脈의 獨動不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甲乙》의 記載가 正確하다.

2. ‘是明胃脈也’가《太素》卷九脈行同異와 《甲乙》卷二第一에는 ‘足陽明胃脈也’로 되어 있는데, 앞 뒤 문장의 內容으로 보아 ‘足陽明胃脈也’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

3. ‘上十焉息 下八焉伏’이《太素》卷九脈行同異에는 ‘上焉息 下焉伏’으로, 《甲乙》卷二第一에는 ‘上出焉息 下出焉伏’으로 되어 있는데, ‘十’과 ‘八’이라는 용어는 內經의 다른 문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또한 寸口脈의 氣의 盛衰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도 어색하므로 《太素》와 《甲乙》의 기재가 精確한 것으로 사료된다.

4. ‘黃帝曰 經脈十二而手太陰足少陰陽明 獨動不休也 岐伯曰 是明胃脈也 胃爲五藏六府之海 其清氣上注於肺 肺氣從太陰而行之 其行也 以息往來

9) 馬: 伯이 言脈氣之離於各臟也가 如矢之離於弓弩하고 如水之下於岸은 矢發則往하고 水下則流니 及其會於寸口하여 上於魚際則會於肺經矣라 又從肺經而行之는 一晝一夜에 共五十度나 但其上魚之際에 十焉在息하고 下魚之後에 八焉伏藏이라 故로 上魚既已則氣以反衰하고 及其餘氣衰散既已하얀 則又逆而上之於魚하니 是以로 各經이 上魚之後에 行之甚微로되 惟肺則爲百脈所朝而獨動不休者니 非他經之可同也라

10) 景岳: 凡脈氣之內發於藏하고 外達於經에 其卒然이 如弓弩之發하고 如水之下岸은 言其勁銳之氣를 不可遏也라 然이나 强弩之末은 其力必柔하고 急流之末은 其勢必緩이라 故로 脈由寸口하여 以上魚際에 盛而反衰하고 其餘氣는 以衰散之勢而逆上이라 故로 其行이 微하니 此脈氣之盛衰가 所以不等也라 ○校釋: 上于魚以反衰의 魚는 謂魚際라 此는 指脈氣從寸口上魚之後에 出現由盛而反衰의 現象이라

11) 張: 伯이 言氣之離臟 卒然如弓弩之發者는 謂五臟之氣가 至於手太陰而變見於寸口者는 應手而動이 如弓弩之發弦하여 上於魚際則動氣衰而無動脈矣라 其餘氣衰散以逆上者는 謂餘氣分散而上注於手陽明大腸經之經이라 故로 其脈上魚而其行微緩也라 此는 言五臟之氣가 因胃氣而至於手太陰하되 腹走手而手走頭하고 頭走足而足走腹하여 常營無已하여 終而復始하여 環轉之無端也라

故人一呼 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不已 故動而不止'의 문구중 手太陰脈이 끊임 없이 搏動하는 이유에 대해 태《太素》에는 '胃中에서 化生된 宗氣가 呼吸과 연계되어 手太陰 寸口의 氣를 推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手足十二經中 手太陰, 足陽明, 手少陰脈이 搏動하는 부위와 搏動原因에 대하여 景岳馬《校釋》은 '手太陰은 太淵, 足少陰은 太谿, 足陽明은 위로는 人迎 아래로는 衝陽이고 三經의 搏動이 다 胃에서 나온 氣의 영향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張은 '搏動부위는 手太陰의 太淵經渠와 足陽明의 人迎衝陽과 足少陰의 太谿이고 搏動理由는 胃에서 유래한 營衛와 宗氣의 힘에 緣由한다'고 하였다. 문장 자체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해석에 있어 약간의 견해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간략히 요점만을 들어 설명한 사람과 장황하다 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한 사람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소견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5. '氣之過於寸口也 上十焉息 下八焉伏 何道從還 不知其極'의 문구중 '上十焉息 下八焉伏'이 《太素》에는 '上焉息 下焉伏'으로 되어 있고 그 해석을 '氣는 手太陰脈氣가 손의 寸口로부터 위로 肺로 들어가 增殖하고 肺로부터 아래로 手指에 이르러 굽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伏은 屈의 뜻이다.'로 해석하고 있고, 馬는 '脈이 寸口를 지날 때에 위로 숨을 따라 운행하는 것은 十分에 비길 수 있고 아래로 臟內에 잠복하는 것은 八분에 비길 수 있다.'로 설명하고 있으며, 景岳은 '上下는 進退의 形勢, 十과 八은 盛衰의 形態를 비유한 것이다. 上十焉息은 脈이 나아갈 때에 그 氣가 盛하고, 下八焉伏은 脈이 물러 날때에 그 氣가 衰하게 되는것'으로 해석하였고, 張은 '上十焉息은 바로 營氣와 衛氣 그리고 宗氣가 전부(十分) 息道로 走行하여 寸口로 變化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下八焉伏은 經

隧로 운행되는 氣는 衛氣와 營氣의 두 갈래일 뿐이다.'로 해석하고 있다.

6. '氣之離藏也 卒然如弓弩之發 如水之下岸 上於魚以反衰 其餘氣衰散以逆上 故其行微'의 해석에 있어 《太素》에는 '氣는 手太陰의 脈氣이다. 手太陰의 脈氣가 寸口를 지나 魚際로 올라가 少商으로 이를 때에 氣가 衰散해 지므로 그 운행이 느리고 미약한 것이다.'고 하였고, 馬는 '手太陰의 脈氣가 魚際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나머지 氣가 다 衰散해진다.'고 하였으며, 景岳《校釋》은 '脈이 寸口에서 유래하여 魚際로 올라 갈 때에는 盛했다가 나중에는 衰해 지고 그 나머지 氣는 衰散된 形勢로 逆上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운행이 微弱하니, 이것이 脈氣의 盛衰가 同等하지 않는 까닭이다.'고 하였고, 張은 '五臟의 氣가 手太陰에 이르러 寸口에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손에 반응하여 뛰는 맥상이 마치 弓弩에서 弦이 발사된 듯하다가 魚際로 올라가게 되면 搏動하는 기운이 衰해져 動脈이 없어진다. 寸口를 지난 나머지 氣는 分散되어 위로 手陽明大腸經으로 注入되기 때문에 그 脈이 魚際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운행이 미약하고 느려지는 것이다.'고 하였다.

#### 【直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經脈은 十二로되 手太陰과 足少陰 그리고 陽明만이 搏動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이는 分明 胃脈때문이니 胃는 五藏六府의 海이다. 그 清氣가 위로 肺로 注入되면 肺氣는 太陰으로부터 운행하되 그 운행이 숨을 따라 往來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一呼에 脈이 두 번 뛰고 一吸에 脈이 또한 두 번 뛰어 呼吸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맥의 搏動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氣가 寸口를 지날 때에 위

로 十分쯤 되는 氣는 어디에서 增殖되고 아래로 八分쯤 되는 氣는 어디에서 潛伏되며 어느 길을 따라 돌아 오는 것입니까? 그 끝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岐伯이 대답하였다. “氣가 藏을 떠남에 卒然함이 마치 弓弩가 발사되는 것과 물이 강변을 따라 내려가는 것과 같으나 魚際로 올라가면 오히려 衰해 지는데 그 나머지 氣는 衰散해져서 逆上하기 때문에 그 운행이 微弱합니다.”

## 第二章. 足陽明脈의 獨動不休

### 【原文】

黃帝曰 足之陽明은 何因而動<sup>1)</sup>하니잇고 岐伯이曰 胃氣上注於肺하되 其悍<sup>1)</sup>氣上衝頭者는 循咽上走空竅하고 循眼系入絡腦하고 出顙<sup>2)</sup>下客主人하고 循牙車合陽明하고 并下人迎하니 此는 胃氣別走於陽明者也라 故로 陰陽上下는 其動也 若一 故로 陽病而陽脈小者는 爲逆이요 陰病而陰脈大者도 爲逆이라 故로 陰陽이 俱靜俱動<sup>3)</sup>하여 若引繩<sup>2)</sup>相傾者<sup>4)</sup>는 病이 아니이다

### 【字句解】

(1) 悍: 凶暴也 사나울 한.

(2) 繩: 索也 노 승.

### 【校勘】

1) 何因而動 :《甲乙》卷二第一에는 ‘因何而動’으로 되어 있다.

2) 顙 :《太素》卷九脈行同異와 《甲乙》卷二第一에는 ‘頤’으로 되어 있다.

3) 陰陽俱靜俱動 :《太素》卷九脈行同異에는 ‘陰陽俱靜與其動’으로, 《甲乙》卷二第一에는 ‘陰陽俱盛與其動’으로 되어 있다.

4) 若引繩相傾者 :《太素》卷九脈行同異에는 ‘若引繩相頓者’로 되어 있다.

### 【較註】

〔1〕胃氣上注於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上走空竅 循眼系入絡腦 出顙下客主人 循牙車合陽明并下人迎 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

《太素》에는 “문기를 ‘十二經脈의 別走는 다 藏의 陰絡으로부터 陽으로 別走하고, 또 府의 陽絡으로 부터 陰으로 別走하니, 이 別走는 바로 胃府盛氣와는 다른 것인데 다시 胃脈陽明經으로 走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였다. ‘대답하기를 ‘胃는 水穀의 海이니 五藏六府가 다 거기서 영양을 받는다. 여기에서 따로 起始한 一道의 氣가 陽明으로 함해지기 때문에 陽明이 經脈가운데에 긴 脈動을 할 수 있는 것이니, 結喉兩箱에 있는 脈을 人迎이라고 한다. 五藏六府의 脈氣가 모두 그 가운데로 나오는데 別走하기 때문에 나머지 經脈들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眼系로 循行하여 腦의 兩箱으로 連絡되어 頤下로 나온다. 頤은 牙車骨을 말하는데 顙骨의 아래에 속한다. 足陽明經과 別走된 氣의 二脈이 모두 내려와 人迎이 되기 때문에 胃에서 別出된 氣가 陽明으로 走行한다고 한 것이다.”<sup>12)</sup>고 하였고, 馬는 “이는 胃脈의 搏動이 끝임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三焦의 氣는 모두 胃氣에서 營氣가 생겨나고 宗氣를 따라 위로 肺로 注入되어 운행된다. 그 중 悍氣는 衛氣이다. 衛氣는 上焦에서 氣를 받아 純陽의 氣가 되는데

12) 太素: 問曰 十二經脈別走는 皆從藏之陰絡으로 別走之陽하고 亦從府之陽絡으로 別走之陰하니 此之別走는 乃別胃府盛氣어늘 還走胃脈陽明經者는 何也오 答曰 胃者는 水穀之海니 五藏六府가 皆悉稟之라 別起一道之氣가 合於陽明 故로 陽明得在經脈中長動이니 在結喉兩箱을 名曰人迎이라 五藏六府脈氣가 并出其中하니 所以別走하여 與餘不同이라 復循眼系하여 絡腦兩箱하여 出於頤下라 頤은 謂牙車骨이니 屬顙骨之下也라 足陽明經及別走氣二脈이 并下以爲人迎也라 故로 胃別氣走陽明也라

標悍滑利해서 날이 맑고 눈을 뜨고 있으면 머리로 上衝하여 안으로 咽喉를 循行하고 위로 空竅로 走行하여 眼系를 循行한 다음 足太陽膀胱經의 睛明穴로 나와 攢竹, 曲差, 五處, 承光, 通天, 絡際 등의 穴을 지나 腦로 들어가 連絡되고 다시 額下 足少陽膽經의 客主人으로 나와 胃經의 牙車로 循行하고 陽明의 經隧로 합쳐져 모두 胃經의 人迎으로 내려오니, 이것이 비록 衛氣의 所行이기는 하나 실은 안의 胃氣가 나와 陽明의 經隧로 別走된 것이다. 그러므로 낮에는 陽經으로 운행하고 밤에는 陰經으로 운행하는 것이다.”<sup>13)</sup>고 하였으며, 景岳《校釋》은 “胃氣가 위로 肺로 注入되되 그 悍氣로서 머리로 올라가는 것은 咽喉를 따라 上行하여 眼系로부터 腦로 들어가 連絡되고 顙으로 나와 아래 足少陽의 客主人으로 모여 牙車에 이르러 비로소 陽明本經과 합쳐지고 아울러 人迎動脈으로 내려오니, 이는 안의 胃氣에서 발생되어 밖으로 陽明의 搏動이 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牙車는 바로 曲牙인데 頰車穴에 해당한다. 顙은 字典의 해석에 ‘굵어 얼굴이 노랗게 된 것이다.’했는데 이는 經旨과 相合되지 않는다. 本經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근거해 보면 雜病篇에 ‘顙痛이 있으면 足陽明曲周動脈을 刺鍼하여 出血시키면 바로 낫는다.’고 하였고, 癰狂篇에서 狂症을 치료 할 때에 ‘머리 兩顙을 取한다.’했으니, 이는 다 頭面部位를 이야기 한 것이다. 이 구절에 ‘腦로부터 顙으로

나와 客主人으로 내려간다.’했으니, 이는 당연히 腦의 아래와 鬢의 앞과 客主人의 위에 존재하니, 바로 鬢骨위의 兩太陽 사이가 顙인 것이다.”<sup>14)</sup>고 하였고, 張은 “이는 陽明의 氣가 盛해서 惟獨 搏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陰陽繫日月論에 ‘兩陽이 인체 앞면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陽明이라고 한다.’하였고, 또 ‘兩火가 合併되기 때문에 陽明이 된다.’했으니, 이는 陽明이 燥金의 氣를 주관하면서 또 悍熱의 火氣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胃氣上注於肺’라는 것은 胃腑에서 생긴 營氣와 宗氣가 위로 肺로 注入되어 經脈의 外內로 운행되어 呼吸漏下에 상응하는 것이고, ‘그 悍熱의 氣가 머리로 上衝하는 것이 咽을 따라 위로 空竅로 走行하고 眼系를 循行하여 腦로 들어가 연락되고 顙下客主人으로 나와 하여 牙車로 循行한다는 것은’ 이 陽明의 悍氣가 위로 空竅로 走行하여 皮膚의 氣分으로 운행되고 아래 陽明脈가운데로 합쳐져 모두 人迎으로 내려가니, 이는 胃腑에서 생긴 悍氣가 陽明으로 別走하는 것이다.”<sup>15)</sup>고 하였다.

13) 馬: 此는 言胃脈動之不休也라 三焦之氣는 皆從胃氣而生 營氣하고 隨宗氣以上注於肺而行之라 其悍氣者는 衛氣也라 衛氣는 受氣於上焦하여 爲純陽之氣니 標悍滑利하여 天明目張則上衝於頭하여 內循咽喉하고 上走空竅하여 循於眼系하여 以出於足太陽膀胱經之睛明穴하고 歷攢竹曲差五處承光通天絡際等穴하여 入絡於腦하고 復出於額下足少陽膽經之客主人하여 循胃經之牙車하고 合於陽明之經隧하여 并下胃經之人迎하니 此雖衛氣所行이나 實內之胃氣出而別走於陽明之經隧者也라 故로 其晝行於陽經하고 夜行於陰經이라

14) 景岳: 胃氣上注於肺而其悍氣之上頭者는 循咽喉上行하여 從眼系入絡腦하고 出顙하여 下會於足少陽之客主人하여 以及牙車하여 乃合於陽明之本經하고 并下人迎之動脈하니 此內爲胃氣之所發이요 而外爲陽明之動也라 按牙車는 卽曲牙니 當是頰車也라 顙之釋義에 云 饑而面黃色이라하니 乃與經旨不相合이라 今據本經所言하면 如雜病篇에 曰 顙痛이어든 刺足陽明曲周動脈하여 見血하면 立已라하고 癰狂篇治狂者에 取頭兩顙이라하니 蓋皆言頭面之部位也라 此節에 言自腦出顙하여 下客主人이라하니 則此는 當在腦之下와 鬢之前과 客主人之上이니 其卽鬢骨之上의 兩太陽之間이 爲顙也라 \*曲周: 足陽明胃經頰車穴周圍. 鬢骨: 부상골, 나비뼈의 큰 날개부위, 眉棱骨뒤쪽 顙骨弓의 윗쪽부위. ○校釋: 顙은 指頭面之部位라 牙車는 卽曲牙니 頰車의部位라 胃氣別走於陽明者는 這是說人迎搏動의 原因이 是由于胃氣上注於肺되 悍氣上衝頭하여 循咽하여 入絡腦하고 下客主人하여 合陽明하여 并下人迎의緣故라 這種由胃氣上注於肺의 循行이 與足陽明經脈의 循行으로 略有不同하니 所以說胃氣別走於陽明이라

15) 張: 此는 言陽明之氣盛而獨動不休者也라 陰陽繫日月論

[2] 故陰陽上下 其動也若一 故陽病而陽脈小者爲逆 陰病而陰脈大者爲逆 故陰陽俱靜俱動 若引繩相傾者病

《太素》·《語譯》에는 '陰은 寸口를 말하니 手太陰이고 陽은 人迎을 말하니 足陽明이다. 上은 人迎을 말하고 下는 寸口를 말하니 거기에 두가지 의미가 있다. 人迎은 陽이니 위에 위치하고 있고 寸口는 陰이니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또 人迎은 목에 있으므로 上이 되는 것이고, 寸口는 손에 있으므로 下가 되는 것이다. 人迎寸口の 搏動은 上下가 相應하여 모두 함께 와 끈을 잡아당길 때와 같기 때문에 하나 같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論하고 있는 人迎과 寸口는 오직 黃帝正經에 나올 뿐이니, 생각해 보면 이것 이외에 다시 異端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근래에 전해오는 것은 다만 兩手左右로 人迎과 寸口를 삼았는데 兩手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인데도 上下라고 하였으니, 필경 믿을 만한 正經이 아니니 아마도 物體를 매우 잘못 이해한 듯하다. 陽이 크고 陰이 작은 것은 바로 陰陽의 본성이다. 陽病은 人迎이 크든 작든 모두 病이지만 脈이 큰 것이 順이고 작은 것이 逆이며, 陰病도 寸口가 크든 작든 다 病이지만 脈이 작은 것이 順이고 큰 것이 逆이니, 順하면 쉽게 낫고 거스리면 낫기 어렵게 된다. '陰陽俱靜與其動 若引繩相傾者病'이라는 것은 人迎과 寸口の 脈이 잠간은 安靜되었다가 금방 또 躁急해져서 마치 끈을 잡아

에 曰 兩陽이 合於前 故曰 日陽明이라하고 又曰兩火合併 故曰 爲陽明이라하니 是는 陽明이 主燥金之氣而又有悍熱之火氣也라 胃氣上注於肺者는 胃腑所生之營氣宗氣가 上注於肺而行於經脈之外內하여 以應呼吸瀾下요 其悍熱之氣上衝頭者가 循咽上走空竅하고 循眼系하여 入絡腦하고 出頤下客主人하여 循牙車는 此陽明之悍氣가 上走空竅하여 行於皮膚之氣分而下合於陽明之脈中하여 并下人迎하니 此는 胃腑所生之悍氣가 別走於陽明者也라

당길 때와 같이 서로 기울어져 脈이 搖動했다가 조용해졌다하는 것이 病임을 말한 것이다."<sup>16)</sup>고 하였고, 馬는 "陰陽의 升降은 그 搏動이 하나 같다. 그러므로 陽病이 있게 되면 脈은 마땅히 洪大해야 하는데 그 胃脈이 오히려 작은 것은 逆이니 陽病엔 마땅히 陽脈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고, 陰病이 있게 되면 脈은 의당 沈細해야 하는데 그 胃脈이 오히려 큰 것은 逆이니 陰病엔 마땅히 陰脈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陽病이 들었는데 脈이 모두 조용하고 陰病이 들었는데 맥이 모두 요동하여 마치 끈을 잡아 당겨 서로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것은 반드시 病이 든 것이니, 이는 胃脈이 끊임없이 搏動하여 모든 병을 徵驗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7)</sup>고 하였으며, 景岳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陰陽上下라는 것은 上文의 手太陰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다. 胃氣는 위로 肺로

16) 太素: 陰은 謂寸口니 手太陰也요 陽은 謂人迎이니 足陽明也라 上은 謂人迎이요 下는 謂寸口니 有其二義라 人迎은 是陽이니 所以居上也요 寸口는 是陰이니 所以居下也라 又人迎在頸하니 所以爲上이요 寸口在手하니 所以爲下라 人迎寸口之動은 上下相應俱來하여 譬之引繩 故로 若一也라 所論人迎寸口는 唯出黃帝正經이니 計此之外에 不可更有異端이라 近相傳者는 直以兩手左右로 爲人迎寸口니 是則兩手相望이어늘 以爲上下하니 竟無正經可憑이니 恐誤物深이라 陽大陰小는 乃是陰陽之性이라 陽病은 人迎大小俱病而大者爲順이요 小者爲逆이며 陰病은 寸口大小俱病而小者爲順이요 大者爲逆이니 順則易療요 逆則爲難也라 陰陽俱靜與其動 若引繩相傾者病은 謂人迎寸口之脈이 乍靜乍躁하여 若引繩相傾傾하여 乍動乍靜者病也라 ○ 語譯: 陽病而陽脈小者爲逆은 陽病時에 人迎脈當大나 若小則爲逆이요 陰病而陰脈大者爲逆은 陰病時에 寸口脈當小나 若大則爲逆이라 引繩相傾은 兩下牽繩이니 都想拉倒一邊이라 是는 譬陰偏靜偏動偏盛偏衰하면 陰陽不能平衡이라

17) 馬: 陰陽升降은 其動也若一이라 故로 人有陽病하면 脈宜洪大어늘 其胃脈反小者는 爲逆이니 以陽病宜見陽脈也요 人有陰病하면 脈宜沈細어늘 其胃脈反大者는 爲逆이니 以陰病宜見陰脈也라 故로 陽病而俱靜하고 陰病而俱動하여 若引繩以相傾者는 必病이니 此胃脈이 所以動之不休而亦可以驗諸病也라

注入되어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다. 胃가 陽明經이어서 脈이 위로 人迎으로 나오고 肺가 太陰經이어서 脈이 아래 寸口로 나오지만 그 氣는 본래 서로 貫通하고 있기 때문에 彼此의 搏動이 하나 같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人迎은 府에 속하여 陽이 되므로 陽病에는 陽脈이 마땅히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작은 것은 逆이고, 寸口는 藏에 속하여 陰이 되므로 陰病에는 陰脈이 마땅히 작아야 하는데 반대로 큰 것은 逆이다. 그러므로 四時氣篇에 '氣口에서는 陰病을 진찰하고 人迎에서는 陽病을 진찰한다.'고 한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陰陽大小에 脈이 각기 本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陰陽이 나뉘어지지 않아 或 모두 조용하거나 或은 모두 요동하여 마치 끈을 잡아당길 때 처럼 힘이 균등한 경우는 그 陰陽의 氣가 이것이 아니면 저것에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있어 病이 되는 것이다.<sup>18)</sup>고 하였고, 張은 "陰陽上下 其動也若一"이라는 것은 대개 身半以上은 陽이 되고 身半以下는 陰이 되므로 위에 있는 人迎과 아래에 있는 衝陽이 相應하게 搏動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陽病이면서 陽脈이 작고 陰脈이 큰 것은 逆이 되고 陰病이면서 陰脈이 크고 陽脈이 작은 것은 逆이 된다. 그러므로 陰陽上下가 고요하면 모두 고요하고 움직이면 모두 움직여 마치 끈을 잡아당길 때처럼 암암리에 기울어져 相應치 않는 것은 病이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上篇에 '胸氣에 길

이 있고 腹氣에도 길이 있으며 頭氣에도 길이 있고 脛氣에도 길이 있다.'고 했으니, 氣가 腹部에 있을 때에는 단지 背膂와 배꼽 좌우 動脈사이의 衝脈으로만 가게 된다. 足陽明脈中 그 가지는 人迎으로 내려가 缺盆으로 들어가고 缺盆으로부터 쪼끔지 안쪽으로 내려가 배꼽을 끼고 氣街中으로 들어가고, 그 가지는 아래 腹部를 循行하여 氣街中에 이르러 합쳐져 髀關으로 내려가고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 足跗上에 이른다. 胃에서 나온 悍氣는 陽明脈에 합쳐져 人迎으로 내려가고 배꼽을 끼고 氣街中으로 들어가게 되면 衝脈과 서로 합쳐져 腹氣의 길로 나오게 된다. 그 가운데 下行하여 足跗로 나오는 가지는 衝陽에서 뛰어 위의 人迎과 더불어 相應하게 된다.<sup>19)</sup>고 하였으며, 태태《校釋》은 "陰陽上下 其動也若一의 陰은 寸口를 말하니 手太陰肺脈을 지적한 것이고, 陽은 人迎을 말하니 足陽明胃脈을 지적한 것이다. 上은 人迎을 말하고 下는 寸口를 말한다. 人迎은 위에 있으므로 上이라 한 것이고 寸口는 손에 있으므로 下라고 한 것이다. 人迎과 寸口 兩者의 搏動은 相應하니, 理論上으로 말하면 一致해야 한다. 다만 脈은 기후의 影響을 받으므로 本書禁服篇에 '春夏에는 人迎이 微大하고 秋冬에는 寸口가 微大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두 가지는 하나 인 듯 하면서도 하나가 아

18) 景岳: 此에 云陰陽上下者는 統上文手太陰而言也라 蓋胃氣는 上注於肺하여 本出一原하니 雖胃爲陽明하여 脈上出於人迎하고 肺爲太陰하여 脈下出於寸口나 而其氣本相貫故로 彼此之動이 其應若一也라 然이나 人迎은 屬府爲陽하니 陽病則陽脈宜大로되 而反小者爲逆이요 寸口는 屬藏爲陰하여 陰病則陰脈宜小로되 而反大者爲逆이라 故로 四時氣篇에 曰 氣口는 候陰하고 人迎은 候陽也라하니 是以로 陰陽大小에 脈各有體라 設陰陽이 不分하여 而或爲俱靜거나 或爲俱動하여 若引繩之勻者는 則其陰陽之氣가 非此則彼에 必有偏傾而致病者矣라

19) 張: 陰陽上下 其動也若一은 蓋身半以上爲陽이요 身半以下爲陰이니 謂在上之人迎과 在下之衝陽이 其動之相應也라 故로 陽病而陽脈小陰脈大者爲逆이요 陰病而陰脈大陽脈小者爲逆이라 故로 陰陽上下가 靜則俱靜하고 動則俱動하여 若引繩默如相傾而不相應者則爲病矣라 按上篇에 曰 胸氣有街하며 腹氣有街하며 頭氣有街하며 脛氣有街라하니 氣在腹者는 止之背膂與衝脈於臍左右之動脈間이라 夫足陽明之脈이 其支者는 下人迎하여 入缺盆하고 從缺盆으로 下乳內廉하여 挾臍入氣街中하고 其支者는 下循腹裏하여 至氣街中而合하여 以下髀關하고 循股外廉하여 至足跗上이라 夫胃之悍氣는 合陽明之脈而下人迎하고 挾臍入氣街中則與衝脈相合하여 而出於腹氣之街矣라 其下行而出於足跗者는 動於衝陽而上與人迎之相應也라

니므로 '其動也若一'이라고 한 것이다.<sup>20)</sup>고 하였다.

#### 【考察】

1. '胃氣上注於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上走空竅 循眼系入絡腦 出頤下客主人 循牙車合陽明 并下人迎 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의 문구중 '別走'의 해석에 있어 《太素》에는 '足陽明經에서 別出되어 走行하는 氣이다.'고 하였고, 馬는 '別走라는 것은 胃에서 化생된 衛氣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景岳 태태張《校釋》도 태태《太素》와 같이 '胃에서 別出된 悍氣가 胃經의 路線과는 다르게 머리로 循行하다가 人迎으로 들어가 搏動現狀을 일으킨 것이다.'로 보고 있다. 결론은 같으나 다만 이를 설명하는 방법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故陰陽上下 其動也若一 故陰病而陽脈小者爲逆 陰病而陰脈大者爲逆 故陰陽俱靜俱動 若引繩相傾者病'의 문구의 해석에 있어 태태《太素》·태태《語譯》에는 '陰陽上下의 陰은 寸口로 手太陰, 陽은 人迎으로 足陽明이며, 上은 人迎을 下는 寸口를 말하는데 거기에 두가지 의미가 있다. 人迎은 陽이니 위에 위치하고 있고 寸口는 陰이니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또 人迎은 목에 있으므로 上이 되는 것이고, 寸口는 손에 있으므로 下가 되는 것이다. 人迎寸口の 搏動은 上下가 相應하여 모두 함께 와 끈을 잡아당길 때와 같기 때문에 하나 같다고 한 것이다.——陽病은 人迎이 크든 작든지 간에 모두 病이지만 脈이 큰 것이 順이고 작은 것이 逆이며, 陰病도 寸口가 크든 작든 다 病이지만 脈

이 작은 것이 順이고 큰 것이 逆이니, 順하면 쉽게 낮고 逆하면 낮기 어렵게 된다. 陰陽俱靜與其動 若引繩相傾者病이라는 것은 人迎과 寸口の 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기울어져 脈이 搖動했다가 조용해졌다하는 것이 病임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고, 馬는 '陽病而陽脈小者爲逆 陰病而陰脈大者爲逆'을 '陽病이 있게 되면 脈은 마땅히 洪大해야 하는데 그 胃脈이 오히려 작은 것은 逆이니 陽病엔 마땅히 陽脈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고, 陰病이 있게 되면 脈은 의당 沈細해야 하는데 그 胃脈이 오히려 큰 것은 逆이니 陰病엔 마땅히 陰脈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陽病이 들었는데 脈이 모두 조용하고 陰病이 들었는데 맥이 모두 요동하여 마치 끈을 잡아 당겨 서로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것은 반드시 病이다.'고 하였으며, 景岳은 '陰陽俱靜俱動 若引繩相傾者病'을 陰陽이 나뉘어지지 않아 힘이 균등한 경우는 陰陽의 氣가 나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病이 되는 것이다.'고 하였고, 張은 '陰陽上下 其動也若一'이라는 것은 대개 身半以上은 陽이 되고 身半以下는 陰이 되니 위에 있는 人迎과 아래에 있는 衝陽이相應되게 搏動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陽病이면서 陽脈이 작고 陰脈이 큰 것은 逆이 되고 陰病이면서 陰脈이 크고 陽脈이 작은 것은 逆이 된다. 그러므로 陰陽上下가 고요하면 모두 고요하고 움직이면 모두 움직여 마치 끈을 잡아당길 때처럼 암암리에 기울어져 相應치 않는 것은 病이 된다.'고 하였으며, 태《校釋》은 '脈은 時令의 影響을 받으므로 春夏에는 人迎이 微大하고 秋冬에는 寸口가 微大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寸口와 人迎脈이 모두 똑같이 나오는 것은 病的狀態이다.'고 하였다.

#### 【直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足陽明은 어떠한 原因으로

20) 校釋: 陰陽上下 其動也若一의 陰은 謂寸口나 指手太陰肺脈이요 陽은 謂人迎이니 指足陽明胃脈이라 上은 謂人迎이요 下는 謂寸口라 人迎在上하니 所以爲上이요 寸口在手하니 所以爲下라 人迎與寸口兩者の搏動은 是相應의이니 從理論上說是一致的이라 但因受時令影響하니 卽本書 禁服篇에 云 春夏엔 人迎微大하고 秋冬엔 寸口微大라하니 所以로 二者似一而非一이라 故로 說其動也若一이라

搏動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胃氣는 위로 肺로 注入하되 그 悍氣가 머리로 上衝되는 것은 咽을 따라 위로 空竅로 走行하고 眼系를 따라 腦로 들어가 연락되며 顛으로 나와 客主人으로 내려가고 牙車를 따라 陽明으로 합하여 모두 人迎으로 내려가니, 이는 胃氣가 陽明으로 別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陰陽上下는 그 搏動이 하나 같이 되는 것입니다. 때 문에 陽病에 陽脈이 작은 경우는 逆이 되고, 陰病에 陰脈이 큰 것도 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陰陽이 俱靜俱動하여 마치 끈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기울어지는 者는 病입니다.”

### 第三章. 足少陰脈의 獨動不休

#### 【原文】

黃帝曰 足少陰은 何因而動하니잇고 岐伯이 曰 衝脈者는 十二經之海也<sup>1)</sup> 與少陰之大絡으로 起於腎하여 下出於氣街하고 循陰股內廉하여 邪<sup>2)</sup>入 臍中하고 循脛骨內廉하여 並少陰之經으로 下入內踝之後하고 入足下하며 其別者는 邪入踝<sup>3)</sup>하여 出屬跗<sup>2)</sup>上<sup>4)</sup>하고 入大指之間하여 注諸絡以溫足脛<sup>4)</sup> 하니 此脈之常動者也니이다

#### 【字句解】

(1) 邪: 斜와 同 기울 사.

(2) 跗: 足背也 발등 부.

#### 【校勘】

1) 十二經之海也 :《甲乙》卷二第一에는 ‘十二經脈之海也’로 되어 있다.

2) 邪入踝 :《甲乙》卷二第一에는 ‘邪入踝內’로 되어 있다.

3) 出屬跗上 :《甲乙》卷二第一에는 ‘出屬跗上’

으로 되어 있고, 태《校釋》과 태《語譯》에 “周本에는 ‘出屬附上’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4) 注諸絡以溫足脛 :《甲乙》卷二第一에는 ‘注諸絡以溫足跗’로 되어 있다.

#### 【較註】

[1] 衝脈者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 下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臍中 循脛骨內廉 並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邪入踝 出屬跗上 入大指之間 注諸絡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

《太素》·景岳은 “少陰正經은 足心으로부터 內踝의 뒤로 올라가고 上行하여 脛을 따라 腎으로 向하며, 衝脈은 腎下에서 起始하여 少陰大絡과 더불어 下行하여 氣街로 나오고 脛을 따라 內踝 뒤로 들어가 아래 足下로 들어간다. 자세히 살펴보면 逆順肥瘦의 少陰獨下 中에 ‘少陰大絡으로 注入된다.’했으니, 만약 그렇다면 衝脈은 少陰과 함께 항상 搏動하는 것이다. 만약 少陰大絡과 함께 모두 내려간다고 한다면 衝脈은 항상 搏動하고 少陰은 搏動할 수 없는 것이다.”<sup>21)</sup>고 하였고, 馬는 “이는 腎脈이 끊임없이 박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脈에 奇經이 여덟인데 그 가운데 衝脈은 十二經의 海가 된다. 衝脈은 足少陰腎經의 大絡과 더불어 腎下에서 起始하여 足陽明胃經의 氣街로 나오고 다시 陰股內廉을 따라 膝後曲處인 臍中으로 비스듬히 들어가고 脛骨內廉을 따라 본

21) 太素: 少陰正經은 從足心으로 上內踝之後하고 上行하여 循脛向腎하고 衝脈은 起於腎下하여 與少陰大絡으로 下行하여 出氣街하고 循脛入內踝後하여 下入足下라 按컨대 逆順肥瘦少陰獨下中에 云 注少陰大絡이라하니 若爾則衝脈은 共少陰常動也라 若取與少陰大絡으로 俱下면 則是衝脈常動이요 少陰不能動也라 ○景岳: 足少陰之脈動者는 以衝脈與之並行也라 衝脈도 亦十二經之海니 與少陰之絡으로 同起於腎下하여 出於足陽明之氣街하고 循陰股臍中內踝等處하여 以入足下하며 其別者는 邪出屬跗上하고 注諸絡하여 以溫足脛하니 此太素等脈이 所以常動不已也라

經少陰經과 併合되고 아래로 內踝 뒤쪽으로 들어가 復溜, 水泉, 照海, 大鍾 等穴을 지나 足下의 湧泉으로 들어간다. 그 別支는 內踝로 비스듬히 들어가고 여기서 나와 足面의 발등위로 소속되며 大指사이로 들어가 諸絡으로 注入되므로서 足脛을 따뜻하게 하니, 이것이 腎脈이 항상 박동하여 쉬지 않는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肺脈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것은 營氣가 宗氣를 따라 諸經으로 운행되고 모든 經脈이 肺로 朝會하기 때문이다. 胃脈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것은 衛氣가 胃에서 나와 운행을 그치지 않기 때문이고, 腎脈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것은 衝脈이 腎脈과 더불어 함께 운행하되 그 운행이 끊임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은 다른 경맥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sup>22)</sup>고 하였으며, 張은 “이는 안으로 流溢되는 血氣가 하나 같이 衝脈과 足少陰의 大絡으로부터 아래 足脛의 氣街로 나와 陰股內廉을 循行하는 것은 血氣가 皮膚로 나와서 少陰經을 따라 운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膈中으로 비스듬히 들어 간 것은 太陽經의 承山穴과 더불어 踝上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 別支는 少陰의 支絡이니 踝跗에서 따로 走行하여 위의 大指사이로 들어가 十指의 絡으로 분산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陽氣는 足五指의 表에서 起始하고 陰氣는 足五指의 안에서 起始하는 것이다. 대개 陰陽二氣는 先天의 水火에 根本하여 腎臟에

22) 馬: 此는 言腎脈動之不休也라 脈有奇經者ハ이니 其衝脈者는 爲十二經之海라 與足少陰腎經之大絡으로 起於腎下하여 出於足陽明胃經之氣街하고 復循陰股內廉하여 斜入膝後曲處之膈中하고 循脛骨內廉하여 并本經少陰之經하고 下入內踝之後하여 經復溜水泉照海大鍾等穴하여 入於足下之湧泉이라 其別支者는 方其斜入內踝之時에 出而屬於足面之跗上하여 入大指之間하여 注諸絡以溫足脛하니 此腎脈之所以常動不休也라 由此觀之면 則肺脈動之不休者는 以營氣隨宗氣而行諸經하고 其諸經之脈이 朝於肺也라 胃脈動之不休者는 以衛氣出於胃而行之不已也요 腎脈動之不休者는 以衝脈與腎脈이 并行而行之不已也니 此其所以異於諸經也歟인저

저장되는데 아래에서 나와 위로 올라간다. 衛氣는 陽明에서 생긴 氣이므로 上節에서 論하고 있는 衛氣가 陽明에서 따로 走行하여 人迎으로 합쳐진다고 한 것은 膺胸臍腹으로부터 아래 跗上에 이르는 것이니, 예를 들면 左右의 動脈이 衝脈과 함께 臍間에 모이게 되면 陽明의 血氣가 衝脈을 따라 腹氣의 길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고, 此節에 論하고 있는 衝脈이 少陰과 함께 脛氣之街에서 나온다고 한 것은 대개 手足十二經의 本標가 다만 頭氣之街와 胸氣之街로 나와 營衛의 운행이 本으로부터 들어가고 標로부터 나와 上下가 서로 貫통되어 고리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그 腹氣之街와 脛氣之街는 바로 陽明少陰의 血氣에서 別出된 것이지 十二經脈本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陽明少陰의 動輸를 따로 提出한 것이다.”<sup>23)</sup>고 하였다.

#### 【考察】

1. 衝脈者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膈中 循脛骨內廉 並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邪入踝 出屬跗上 入大指之間 注諸絡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 의 해석에 있어, 모든 註釋家들은 少陰脈이 항

23) 張: 此는 言流溢於中之血氣가 一從衝脈與足少陰之大絡으로 而下出於足脛之氣街하여 循陰股內廉者는 血氣出於皮膚하여 仍循少陰之經而行也라 斜入膈中者는 與太陽之承山으로 踝上以下也라 其別者는 乃少陰之支絡이니 別走於踝跗하여 上入大指之間而散於十指之絡이라 是以로 陽氣는 起於足五指之表하고 陰氣는 起於足五指之裏라 蓋陰陽二氣는 本於先天之水火하여 藏於腎臟하니 出於下而升於上也라 夫衛氣者는 陽明所生之氣也니 上節에 論衛氣之別走陽明合於人迎은 是從膺胸臍腹而下至跗上하니 如左右之動脈이 與衝脈으로 會於臍間則陽明之血氣가 隨衝脈而出腹氣之街矣요 此節에 論衝脈與少陰出於脛氣之街는 蓋手足十二經之本標가 止出於頭氣之街와 胸氣之街하여 營衛之行이 從本而入하고 從標而出하여 上下相貫하여 如環無端이라 其腹氣之街와 脛氣之街는 乃別出陽明少陰之血氣요 不在十二經脈本標之內라 故로 別提出陽明少陰之動輸焉이라

상 搏動하는 것은 原文의 記載를 그대로 따라 衝脈이 少陰大絡과 함께 운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설명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太素》景岳은 '少陰脈이 항상 搏動하는 것은 正經은 足心으로부터 內踝의 뒤로 올라가고 上行하여 脛을 따라 臂으로 向하, 衝脈은 臂下에서 起始하여 少陰大絡과 더불어 下行하여 氣街로 나오고 脛을 따라 內踝 뒤로 들어가 아래 足下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衝脈은 少陰과 함께 항상 搏動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馬는 '臂脈이 끊임없이 박동하는 것은 衝脈이 臂脈과 더불어 함께 운행하되 그 운행이 끊임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은 다른 경맥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고 하였으며, 張은 '此節에 論하고 있는 衝脈이 少陰과 함께 脛氣之街로 나온다고 한 것은 대개 手足十二經의 本標가 다만 頭氣之街와 胸氣之街로 나와 營衛의 운행이 本으로부터 들어 가고 標로부터 나와 上下가 서로 관통되어 고리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 【直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足少陰은 어떤 원인으로 搏動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衝脈은 十二經의 海이니, 少陰大絡과 함께 臂에서 起始하여 아래로 氣街로 나오고 陰股內廉을 循行하여 비스듬히 臍中으로 들어가고 脛骨內廉을 循行하여 少陰經과 더불어 아래로 內踝 뒤로 들어갔다가 足下로 들어가며 그 別出되는 것은 비스듬히 踝로 들어가 跗上으로 나와 所屬되고 大指사이로 들어가 諸絡으로 注入되어 足脛을 따뜻하게 하니, 이것이 脈이 恒常 搏動하는 까닭입니다.”

## 第四章. 營衛의 運行

#### 【原文】

黃帝曰 營衛之行也<sup>1)</sup> 上下相貫하여 如環之無端 하니 今有其卒然遇邪氣<sup>2)</sup>하고 及逢大寒하여 手足懈惰<sup>1)3)</sup>하여 其脈陰陽之道와 相輸之會에 行相失也면 氣何由還하니잇고 岐伯이 曰 夫四末은 陰陽之會者니 此氣之大絡也요 四街者는 氣之徑<sup>2)</sup>路也<sup>4)</sup>라 故로 絡絕則徑通하고 四末이 解則氣從合하여 相輸如環하니이다 黃帝曰 善하노이다 此所謂如環無端이니 莫知其紀<sup>3)</sup>나 終而復始 此之謂也니이다

#### 【字句解】

- (1) 懈惰: 개으름.
- (2) 徑: 小路也 지름길 경.
- (3) 紀: 道理 기.

#### 【校勘】

1) 營衛之行也 :《甲乙》卷二第一에는 '衛氣之行也'로 되어 있다.

2) 今有其卒然遇邪氣 :《甲乙》卷二第一에는 '今有卒遇邪氣'로 되어 있다.

3) 手足懈惰 :《甲乙》卷二第一에는 '手足不隨'로 되어 있다.

4) 氣之徑路也 :《太素》卷九脈行同異에는 '氣之徑也'로,《甲乙》卷二第一에는 '氣之經也'로 되어 있다.

#### 【較註】

〔1〕營衛之行也 上下相貫 如環之無端 今有其卒然遇邪氣 及逢大寒 手足懈惰 其脈陰陽之道 相輸之會 行相失也 氣何由還

《太素》景岳은 “營은 手太陰에서 運行하여 아래 手大指次指的 끝에 이르고 手陽明으로 돌아 上行하여 머리에 이르며 足陽明으로 내려가니 이 十二經脈이 陰經, 陽經을 서로 관통하여 고리처럼 끝이 없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邪氣나 추위가 있

어 四支로 첨번되던 陰陽相輸의 길이 不通하게 될 것이니 어디로 돌아 가겠는가?<sup>24)</sup>라고 하였다.

[2] 岐伯曰 夫四末陰陽之會者 此氣之大絡也 四街者氣之徑路也 故絡絕則徑通 四末解則氣從合 相輸如環 黃帝曰善 此所謂如環無端 莫知其紀 終而復始 此之謂也

《太素》·馬景岳張은 “四末은 四支이니 十二經이 다 四支에서 끝나고 시작한다. 그러므로 陰經, 陽經이 모여 氣의 大絡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大絡이 비록 四支로 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다시 氣가 운행되는 지름길이 있는데 이를 四街라 하니 예를 들면 이른바 氣街가 이것이다. 무릇 邪氣가 인체로 侵犯함에는 대부분 大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絡脈이 끊어지면 지름길이 通하게 되고, 邪氣가 이미 지나 가서 四末에서 病이 풀리게 되면 저쪽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이쪽은 通하게 되고 氣가 따라 합쳐져 두루 두루 轉輸될 것이니 어찌 氣의 운행이 끊어지겠는가? 이것이 고리처럼 끝이 없이 運轉되는 까닭이기는 하나 그 道理를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sup>25)</sup>고 하였다.

24) 太素: 營行手太陰하여 下至手大指次指之端하고 迴爲手陽明하여 上行至頭하고 下足陽明하니 如此十二經脈이 陰陽相貫하여 如環之無端也라 卒有邪氣及寒하여 客於四支하면 陰陽相輸之道不通하니 何由還也오 ○景岳: 營衛之行은 陰陽有度하니 若邪氣居之면 則其運行之道 宜相失也리니 又何能往還不絕이리오 因問其故라

25) 景岳: 四末은 四支也니 十二經이 皆終始於四支라 故曰 陰陽之會而爲氣之大絡也라 然이나 大絡이 雖會於四支나 復有氣行之徑路하니 謂之四街니 如前篇所謂氣街者가 是也라 凡邪之中人에 多在大絡 故로 絡絕則徑通하고 及邪已行而四末解하여는 彼絕此通하고 氣從而合하여 廻還轉輸하니 何能相失이리오 此所以如環無端이나 莫知其紀也라 ○太素: 四末은 謂四支니 身之末也라 四街는 謂胸腹頭脰이니 脈氣道也라 邪氣大寒이 客於四末하여 先客絡脈하면 絡脈雖通이나 內經尙通 故로 氣相輸如環이오 寒邪解已하면 復得通也라 ○馬: 此는 言營衛之行이 相輸如環하여 非邪氣大寒之所能失也라 帝問營氣가 隨宗氣以行於經隧之中에 始於手太陰而終於足厥陰하고 衛氣가 行於各經皮膚分肉之間에 始於足太陽而終於足太陰하여 陰陽諸

#### 【考察】

1. '岐伯曰 夫四末陰陽之會者 此氣之大絡也 四街者氣之徑路也 故絡絕則徑通 四末解則氣從合 相輸如環 黃帝曰善 此所謂如環無端 莫知其紀 終而復始 此之謂也' 의 해석에 있어 모든 註釋家들이 다 '四末은 四支이니 十二經이 다 四支에서 끝나고 시작한다. 그러므로 陰經, 陽經이 모여 氣의 大絡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大絡이 비록 四支로 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다시 氣가 운행되는 지름길이 있는데 이를 四街라 하니 예를 들면 이른바 氣街가 이것이다. 무릇 邪氣가 인체로 侵犯함에는 대부분 大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絡脈이 끊어지

經이 相貫而行하여 如環無端이나 但卒然遇邪氣大寒이면 則手足懈惰하여 其脈氣所行之 陰陽之道와 輸運之會가 宜乎其相失也리니 則營氣는 何由而環하여 復欲始於手太陰하여 以終於足厥陰이며 衛氣는 亦何由而環하여 復欲始於足太陽하여 以終於足太陰者나 難矣라 伯言四肢爲四末이니 乃陰陽諸經所會요 而爲營衛二氣之大絡也라 四街는 卽本經衛氣篇之所謂胸氣有街腹氣有街頭氣有街脰氣有街者가 是也니 此四街爲營衛二氣之徑路라 故로 大絡이 雖或阻絶이나 而徑路則自相通하여 彼逢邪氣大寒之時에 手足固嘗懈惰나 及懈惰已解하면 則二氣復合하여 相輸如環이라 ○張: 此는 申明經脈之血氣가 從四街而出行於脈外하고 皮膚分肉之氣血이 從四末而入行於脈中이라 上下相貫은 環轉之無端也라 四末者는 四肢之秒末이니 手足之指并也라 其脈者는 謂手足三陰三陽之經輸요 陰陽之道者는 血氣從此所行之道路也라 相輸之會氣從合者는 謂皮膚之氣血이 從四末而溜於脈中하여 輸行於經而與脈中之血氣로 相會하여 入於肘膝間而與脈中之血氣로 相合 故로 曰四末이 解則氣從合이라 蓋假風寒之邪하여 以明四末이 乃陰陽之會니 氣從此而所入之大絡也라 如因邪氣所阻면 則手足懈惰而道路不通하니 氣何由而環轉고 如四末和解則氣血이 輸會於脈中而環轉於氣街矣라 夫經脈者는 內連於臟腑하고 外絡於形身하여 外內出入에 常營無已요 絡脈者는 乃經脈之支別이니 如江河之支流가 至稍秒而有盡也라 四街者는 氣之徑路也라 故로 絡絕則徑通이라 手足十二經之本標는 出於頭氣之街胸氣之街하고 陽明所生之血氣는 復出於腹氣之街하며 少陰所藏之血氣는 復出於脰氣之街하니 此經脈中之血氣는 復從絡脈之盡處로 出於氣街而行於皮膚分肉之外也라 此營衛之行於皮膚經脈之外內는 上下相貫하여 如環無端하니 莫知其紀也라

면 지름길이 通하게 되고, 邪氣가 이미 지나 가서 四末에서 病이 풀리게 되면 저쪽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이쪽은 通하게 되고 氣가 따라 합쳐져 두루 두루 轉輸될 것이니 어찌 氣의 운행이 끊어지겠는가? 이것이 고리처럼 끝이 없이 運轉되는 까닭이기는 하나 그 道理를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고 하여 별다른 異見이 없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營衛의 運行은 上下로 貫通하여 고리와 같이 끝이 없으니, 이제 갑자기 邪氣를 만나거나 큰 추위를 마주치게 되어 手足에 힘이 풀려서 그 脈中에서도 陰經, 陽經의 길과 서로 轉輸되는 곳에 운행이 失常되면 氣가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四末은 陰陽이 모이는 곳이니, 이는 氣의 大絡이고 四街는 氣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絡이 끊어지면 지름길이 通하게 되고, 四末에 邪氣가 풀어진다면 氣가 이어 會合되어 고리처럼 서로 轉輸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고리와 같이 끝이 없다는 것이니, 그 道理는 제대로 알 수 없으나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意譯】

黃帝가 말씀하였다. "經脈은 十二인데 그 중에서도 手太陰脈과 足少陰脈 그리고 足陽明脈만이 惟獨 搏動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岐伯이 대답하였다. "이는 分明 胃脈때문이니, 胃는 五藏六府의 海이다. 그 清氣가 위로 肺로 注入되면 肺氣는 太陰經으로부터 운행하되 그 운행이 呼吸을 따라 往來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一呼에 脈이 두 번 뛰고 一吸에 脈이 또한 두 번 뛰어 呼吸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맥의 搏動이 그

치지 않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氣가 寸口를 지날 때에 위로 十分쯤 되는 氣는 어디에서 增殖되고 아래로 八分쯤 되는 氣는 어디에서 潛伏되며 어느 길을 따라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 끝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岐伯이 대답하였다. "氣가 藏을 떠남에 卒然함이 마치 弓弩가 발사되는 것과 물이 강변을 따라 내려가는 것과 같으나 魚際로 올라가면 오히려 衰해 지는데 그 나머지 氣는 衰弱해지고 흩어져 逆上하기 때문에 그 운행이 微弱한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足陽明脈은 어떠한 原因으로 搏動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胃氣는 위로 肺로 注入되되, 그 悍氣가 머리로 上衝되는 것은 목구멍을 따라 위로 空竅로 走行하고 眼系를 따라 腦로 들어가 연락되며, 顙으로 나와 客主人으로 내려가고 牙車를 따라 陽明으로 합쳐지고 난 뒤 모두 人迎으로 내려가니, 이는 胃氣가 陽明으로 別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陰陽上下는 그 搏動이 하나 같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陽病에 陽脈이 작은 경우는 逆이 되고, 陰病에 陰脈이 큰 것도 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陰陽이 똑 같이 고요하거나 똑 같이 搖動하여 마치 끈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기울어지는 경우는 病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足少陰脈은 어떤 原因으로 搏動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衝脈은 十二經의 海이니, 少陰大絡과 함께 腎에서 起始하여 아래로 氣街로 나 오고 陰股內廉을 循行하여 비스듬히 臍中으로 들어가고 脛骨內廉을 循行하여 少陰經과 더불어 아래로 內踝 뒤로 들어갔다가 足下로 들어가며 그 別出되는 것은 비스듬히 踝로 들어가 跗上으로 나와 所屬되고 大指사이로 들어가 諸絡으로 注入되

어 足脛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것이 脈이 恒常 搏動하는 까닭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營衛의 運行은 上下로 貫通하여 고리와 같이 끝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邪氣를 만나거나 큰 추위를 마주치게 되어 手足에 힘이 풀려서 그 脈中에서도 陰經, 陽經의 길과 서로 轉輸되는 곳에 運行이 失常되면 氣가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岐伯이 말하였다. “四末은 陰陽이 모이는 곳이니, 이는 氣의 大絡이고 四街는 氣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絡이 끊어지면 지름길이 通하게 되고, 四末에 邪氣가 풀어지면 氣가 이어 會合되어 고리처럼 서로 轉輸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고리와 같이 끝이 없다는 것이니, 그 運行하는 道理는 제대로 다 알 수 없으나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 IV. 結 論

1. 第一章의 ‘手太陰足少陰陽明’이 《甲乙》에는 ‘手太陰之脈’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岐伯의 對答이 手太陰脈의 獨動不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甲乙》의 記載가 正確하다.

2. 第一章의 ‘是明胃脈也’가《太素》와 《甲乙》에는 ‘足陽明胃脈也’로 되어 있는데, 앞 뒤 문장의 內容으로 보아 ‘足陽明胃脈也’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

3. 第一章의 ‘上十焉息 下八焉伏’이《太素》에는 ‘上焉息 下焉伏’으로, 《甲乙》에는 ‘上出焉息 下出焉伏’으로 되어 있는데, ‘十’과 ‘八’이라는 용어는 內經의 다른 문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또한 寸口脈의 氣의 盛衰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도 어색하므로 《太素》와 《甲乙》의 기재가 정확한

것으로 사료된다.

4. 第一章의 ‘黃帝曰 經脈十二而手太陰足少陰陽明 獨動不休何也 岐伯曰 是明胃脈也 胃爲五藏六府之海 其清氣上注於肺 肺氣從太陰而行之 其行也以息往來 故人一呼 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不已 故動而不止’의 문구 중 手太陰脈이 끊임없이 搏動하는 이유에 대해 태《太素》에는 胃中에서 化生된 宗氣가 呼吸과 연계되어 手太陰 寸口の 氣를 推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手足十二經中 手太陰, 足陽明, 手少陰脈이 搏動하는 부위와 搏動原因에 대하여 景岳馬《校釋》은 ‘手太陰은 太淵, 足少陰은 太谿, 足陽明은 위로는 人迎 아래로는 衝陽이고 三經의 搏動이 다 胃에서 나온 氣의 영향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張은 ‘搏動부위는 手太陰의 太淵經渠와 足陽明의 人迎衝陽과 足少陰의 太谿이고 搏動理由는 胃에서 유래한 營衛와 宗氣의 힘에 緣由한다’고 하였다.

5. 第一章의 ‘氣之過於寸口也 上十焉息 下八焉伏 何道從還 不知其極’의 문구중 ‘上十焉息 下八焉伏’이 《太素》에는 ‘上焉息 下焉伏’으로 되어 있고 그 해석을 ‘上焉息 下焉伏은 手太陰脈氣가 손의 寸口로부터 上部의 肺로 들어가 增殖되고, 다시 肺로부터 아래로 手指에 이르러 굽어지게 되는 것’으로, 馬는 ‘脈이 寸口를 지날 때에 위로 숨을 따라 運行하는 것은 十分, 아래로 臟內에 잠복하는 것은 八분에 비길 수 있다.’로, 景岳은 ‘上下는 進退의 形勢, 十과 八은 盛衰의 形態를 비유한 것이다. 上十焉息은 脈이 나아갈 때에 그 氣가 盛하고, 下八焉伏은 脈이 물러 날때에 그 氣가 衰하게 되는 것’으로, 張은 ‘上十焉息은 바로 營氣와 衛氣 그리고 宗氣가 전부(十分) 息道로 走行하여 寸口로 變化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下八焉伏은 經隧로 運行되는 氣는 衛氣와 營氣의 두 갈래일 뿐이다.’로 해석하였다.

6. 第一章의 '氣之離藏也 卒然如弓弩之發 如水之下岸 上於魚以反衰 其餘氣衰散以逆上 故其行微'의 해석에 있어 《太素》에는 '氣는 手太陰의 脈氣이다. 手太陰의 脈氣가 寸口를 지나 魚際로 올라가 少商으로 이를 때에 氣가 衰散해 지므로 그 운행이 느리고 미약한 것이다.'고 하였고, 馬는 '手太陰의 脈氣가 魚際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나머지 氣가 다 衰散해진다.'고 하였으며, 景岳《校釋》은 '脈이 寸口에서 유래하여 魚際로 올라 갈 때에는 盛했다가 나중에는 衰해 지고 그 나머지 氣는 衰散된 形勢로 逆上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운행이 微弱하니, 이것이 脈氣의 盛衰가 同等하지 않는 까닭이다.'고 하였고, 張은 '五臟의 氣가 手太陰에 이르러 寸口에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손에 반응하여 뛰는 맥상이 마치 弓弩에서 弦이 발사된 듯하다가 魚際로 올라가게 되면 搏動하는 기운이 衰해져 動脈이 없어진다. 寸口를 지난 나머지 氣는 分散되어 위로 手陽明大腸經으로 注入되기 때문에 그 脈이 魚際로 올라간 다음에는 그 운행이 미약하고 느려지는 것이다.'고 하였다.

7. 第二章의 '胃氣上注於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上走空竅 循眼系入絡腦 出顙下客主人 循牙車合陽明 并下人迎 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의 문구 중 別走의 해석에 있어 《太素》에는 '足陽明經에서 別出되어 走行하는 氣이다.'고 하였고, 馬는 '別走라는 것은 胃에서 化生된 衛氣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景岳태태張《校釋》도 태태《太素》와 같이 '胃에서 別出된 悍氣가 胃經의 路線과는 다르게 머리로 循行하다가 人迎으로 들어가 搏動現狀을 일으킨 것이다.'로 보고 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은 같으나 다만 이를 설명하는 방법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8. 第二章의 '故陰陽上下 其動也若一 故陽病而陽脈小者爲逆 陰病而陰脈大者爲逆 故陰陽俱靜俱

動 若引繩相傾者病'의 문구의 해석에 있어 태태《太素》·태태《語譯》에는 '陰陽上下의 陰은 寸口로 手太陰, 陽은 人迎으로 足陽明이며, 上은 人迎을 下는 寸口를 말하는데 거기에 두가지 의미가 있다. 人迎은 陽이니 위에 위치하고 있고 寸口는 陰이니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人迎은 목에 있으므로 上이 되고, 寸口는 손에 있으므로 下가 된다. 人迎寸口の 搏動은 上下가 相應하여 모두 함께 와 끈을 잡아당길 때와 같기 때문에 하나 같다고 한 것이다.——陽病은 人迎이 크든 작든 시간에 모두 病이지만 脈이 큰 것이 順이고 작은 것이 逆이며, 陰病도 寸口가 크든 작든 다 病이지만 脈이 작은 것이 順이고 큰 것이 逆이니, 順하면 쉽게 낮고 逆하면 낮기 어렵게 된다. 陰陽俱靜與其動 若引繩相傾者病이라는 것은 人迎과 寸口の 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기울어져 脈이 搖動했다가 조용해졌다하는 것이 病임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고, 馬는 '陽病이 있게 되면 脈은 마땅히 洪大해야 하는데 그 胃脈이 오히려 작은 것은 逆이니 陽病엔 마땅히 陽脈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고, 陰病이 있게 되면 脈은 의당 沈細해야 하는데 그 胃脈이 오히려 큰 것은 逆이니 陰病엔 마땅히 陰脈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陽病이 들었는데 脈이 모두 조용하고 陰病이 들었는데 맥이 모두 요동하여 마치 끈을 잡아 당겨 서로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것은 반드시 病이다.'고 하였으며, 景岳은 '陰陽俱靜俱動 若引繩相傾者病은 陰陽이 나뉘어지지 않아 힘이 균등한 경우는 陰陽의 氣가 나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病이 되는 것이다.'고 하였고, 張은 '陰陽上下 其動也若一이라는 것은 대개 身半以上은 陽이 되고 身半以下는 陰이 되니 위에 있는 人迎과 아래에 있는 衝陽이 相應되게 搏動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陽病이

면서 陽脈이 작고 陰脈이 큰 것은 逆이 되고 陰病이면서 陰脈이 크고 陽脈이 작은 것은 逆이 된다. 그러므로 陰陽上下가 고요하면 모두 고요하고 움직이면 모두 움직여 마치 끈을 잡아당길 때처럼 암암리에 기울어져 相應치 않는 것은 病이 된다.’고 하였으며, 태《校釋》은 ‘脈은 時令의 影響을 받으므로 春夏에는 人迎이 微大하고 秋冬에는 寸口가 微大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寸口와 人迎脈이 모두 똑같이 나오는 것은 病的狀態이다.’고 하였다

9. 第三章의 ‘衝脈者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起於腎 下出於氣街 循陰股內廉 邪入腠中 循脛骨內廉 並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邪入踝 出屬跗上 入大指之間 注諸絡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의 해석에 있어, 모든 註釋家들은 少陰脈이 항상 搏動하는 것은 原文의 記載를 그대로 따라 衝脈이 少陰大絡과 함께 운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學者에 따라 說明方法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0. 第四章은 모든 註釋家의 見解가 동일한데, 인체의 四末은 四支로서 十二經이 다 四支에서 끝나고 시작한다. 그러므로 陰經, 陽經이 여기에 다 모여 氣의 大絡이 되는 것이고, 인체에는 또 氣가 운행되는 지름길이 있는데 이를 四街라 한다. 邪氣가 인체로 侵犯함에는 대부분 大絡으로 들어오는데 絡脈이 끊어지면 지름길인 四街로 氣가 통하게 되어 두루 轉輸되므로써 氣의 운행이 고리처럼 끝이 없이 運轉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參考文獻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清袁昶刻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1.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本).
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5. 馬蒔: 黃帝內經靈樞經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6. 張馬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서울, 一中社, 1988.
7. 陳夢雷 外1人: 醫經註釋(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8.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0. 鄺露春: 黃帝內經靈樞經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1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3.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4. 小曾戶洋: 黃帝內經古注選集5(靈樞講義), 오리エト出版社, 1988.
15. 楊維傑: 黃帝內經靈樞經譯解,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16. 王貴元 外1人: 評析本白話黃帝內經,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3.
17. 王冰: 王冰註靈樞經, 臺灣中華書局, 1972.
1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論章, 1990.
19. 元陽真人: 黃帝內經(附白話全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3.
20. 李政育: 靈樞讀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21. 宗全和: 靈樞經, 春秋出版社, 內蒙古自治區, 1988.

22. 池田政一: 靈樞概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2.

